

‘네이버 별점’ 부활에 소상공인 우려… “악탈적 플랫폼 회기”

소공연 “대부분 장소에 별점 도입
트래픽 장사 혈안, 갑질행태 ‘분노’
악의적 의도 ‘별점테러’ 무방비 노출”
‘별점관리노하우’ 등 마케팅 포착

5년 만에 부활해 이달 9일부터 재개한 ‘네이버 별점’에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관련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악탈적 플랫폼으로의 회귀’라며 네이버를 강력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네이버 상에는 ‘별점 시대 생존 전략’ 등을 통해 잇속을 챙기려는 마케팅들이 판을 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장사가 안돼 앓아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만 더욱 가뭄되고 있다는 우려다.

소공연은 14일 내놓은 논평에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네이버가 단순히 식당, 카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장소’에 별점을 도입함에 따라 여타 온라인플랫폼과 비교할 수도 없는 현



네이버가 2021년에 중단한 음식점 등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대한 ‘별점’을 지난 9일부터 부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상점 밀집 골목 전경.

/김승호 기자

장의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생존보다 트래픽 장사에 혈안이 돼 또다시 소상공인을 줄 세우기 하겠다는 네이버의 갑질행태에 연합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네이버는 평균 별점의 노출 여부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작 개별

소비자가 남기는 별점은 비공개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뒀다”며 “이는 결국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 이용자의 ‘별점 테러’에 소상공인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또다시 무한 경쟁과 불합리한 ‘갑질’의 굴레로 밀어 넣는 처사”라고 혹평했다.

소공연은 이에 따라 ▲개별 별점 비공개 기능 전면 도입 ▲악성 별점 테러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구제 조치 등 실효성 있는 상생 보호막 최우선 구축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4년 12월 당시 법무처가 꾸렸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다시 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5개 중 앙부처는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해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하는 정책대응반을 통해 악성 리뷰·댓글 피해, 노쇼 피해, 불법광고 피해,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등 ‘소상공인 관련 4대 피해’에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게 확인되었다.

네이버 별점 부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이를 이용한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네이버에는 ‘#별점관리노하우’ 등의 키워드로 소상공인들을 유인하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 지역에 있

는 마케팅업체는 ‘별점과 키워드 리뷰의 강력한 시너지를 노려라’면서 별점 맛집으로 세팅하는 생존 전략 3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별점)3점대 매장을 인수해 내가 받지도 않은 3점대를 다 끌고 간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또다른 소상공인은 “고객이 별점 5점을 주려고 다섯번째 별을 클릭해도 조금만 왼쪽으로 클릭하면 4.5점으로 적용되고 수정도 안돼 별점이 낮아진다. 별점을 다시 부활시킨게 짜증난다”고 토로했다.

소공연 관계지는 “5년 동안 중단했던 별점을 부활하면서 네이버가 더욱 커진 영향력을 이용해 결국 트래픽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장사가 안되는 소상공인들은 별점에 울고 웃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다”면서 “연합회는 별점 부활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현대로템 ‘K2 전차’, 국내 첫 나토 품질보증 인증 획득

‘AQAP-2110’ 인증 수여식 열어
구난전차, 교량전차 등 전차 계열 제품
유럽 중심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비롯한 전차 계열 제품에 대해 국내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품질보증 인증을 획득했다. 나토 회원국 방산사업 입찰에 요구되는 품질 요건을 선제적으로 갖추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13일 경기 의왕 본사에서 국방기술품질원과 나토 품질보증시스템(AQAP) 인증 수여식을 열고 ‘AQAP-2110’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AQAP-2110 인증을 받은 것은 현대로템이 처음이다. 국제 협력을 통해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공식 인증기관



신상범 기품원장(오른쪽),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지난 13일 현대로템 의왕 본사에서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수여식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로템

자격을 확보한 국방기술품질원이 처음으로 인증을 부여한 사례이기도 하다.

AQAP-2110은 나토 회원국의 방산물자 획득 과정에서 적용되는 품질보증 표준 규격으로 우리나라 국방품질경영시스

템(DQMS)과 유사한 체계다. 설계와 개발, 제조 등 전 과정에 걸쳐 품질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 수출을 위한 핵심 인증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증 대상은 K2 전차를 비롯해 구난전차, 교량전차, 장애물개척전차 등 현대로템의 전차 계열 제품이다. 회사는 향후 시장 수요에 맞춰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토는 전 세계 국방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이다. 이번 인증은 최근 나토 정상들이 국방비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토는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등 방위비 증액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 中企 PL보험·손해공제로 할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및 손해공제료 5% 특별할인’을 시행한다.

1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 할인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중앙회 PL보험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단체보험으로, 생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한다.

중기중앙회, 5% 특별할인 시행
지자체 사업과 중복 혜택 가능
“경영 안정성, 제조혁신 강화 지원”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가입 방식을 통해 일반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업체는 여기에 추가 5%의 특별할인을 받게 된다.

특히, 전국 13개 주요 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사업’(납입 보험료의 10~30% 내 지원, 최대 100만 원 한도)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직면하는 화재위험, 재산손해,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에도 동일하게 5% 특별할인 보험료 혜택이 적용된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전무이사는 “이번 특별 할인 제도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제조업체들이 후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여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제조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오후 6시에 끝나는 창호 ‘원데이 시공”

LX하우시스 ‘LX Z:IN 창호 뷰프레임’
다중 챔버 설계로 우수한 단열성능

LX하우시스가 여름철 냉방비 걱정을 덜어주는 고단열 창호 제품 ‘LX Z:IN 창호 뷰프레임’을 내세워 휴가기간을 활용한 창호 교체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공략하고 있다.

14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뷰프레임’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뛰어난 단열 성능과 베젤리스 프레임 디자인으로 기존 창호보다 더 넓은 뷰를 선사하고 하루만에 시공이 가능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국내 대표 창호 제품이다.

‘원데이 시공’은 오전 9시에 창호 교체 작업을 시작해 오후 6시쯤 모든 작업이 끝난다. 하루 만에 공사를 빠르게 끝내고 소음과 먼지 등 공사로 인한 이웃 갈등도 줄일 수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뷰프레임’은 창짝과 창틀 모두에 단열성능을 높이는 다중 챔버 설계를 적용해 우수한 단열성능을 확보한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중 챔버는 여러 겹의 옷을 입으면 그 사이 공간에 공기층이 형성돼 보온 효과가 커지듯이 창호의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틀·창짝 내부를 여러 개의 공간(챔버)로 나눈 구조 기술이다.

여기에 LX하우시스는 7~8월 두 달간 전국 120곳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행사를 통해 창호 교체 수요를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LX하우시스 관계지는 “철거부터 설치까지 하루 만에 다 끝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데이 시공’ 제품들이 휴가철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며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다양한 관측행사 등을 앞세워 창호 교체 수요 잡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N32 모션베드’, 반얀트리 서울 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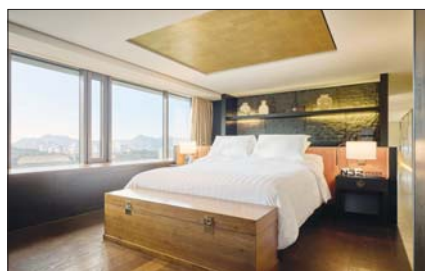
‘슬립 웰니스 스위트’ 패키지 선택

시몬스의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 N32가 서울 중구에 있는 5성급 호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 입성했다.

14일 시몬스에 따르면 최근에 전통 침대 ‘N32 모션베드’를 반얀트리 서울에 납품했다. 국내 주요 특급호텔에 팝업 형태가 아닌 정식으로 모션베드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반얀트리 서울은 그랜드 프리미어 풀 스위트 객실에 N32 모션베드를 내세운 ‘슬립 웰니스(Sleep Wellness) 스위트’ 패키지를 선보인다.

N32 모션베드는 5개 플레이트로 분절돼 사용자의 자세나 수면 환경에 따라 세밀하게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전통 침대다. 분절되는 면에 ‘안전 센서’를 부착해 끼임이 감지되면 안전 모드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아이들이 기기 내부로 들어가는 것



‘N32 모션베드’가 설치된 반얀트리 서울 ‘그랜드 프리미어 풀 스위트’ 객실 전경.

을 방지하는 ‘스판 안전 가립천’도 설치해 탁월한 안전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블루투스 연결 기능과 A·C타입 충전 포트, 모션 저장 모드(메모리 기능) 등의 편의 요소도 갖춰 국내 모션베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반얀트리 서울의 선택을 받았다.

N32 모션베드와 호환해 사용하는 ‘N32 폼 매트리스’는 물론 ‘윈즈밀러 오가닉 비건 필로우’도 함께 비치됐다. /김승호 기자